

[세계피겨선수권]김연아, 올림픽 2연패 대위업 '맑음'

등록 2013.03.17 12:34:25 | 수정 2016.12.28 07:09:38



【런던(캐나다)=뉴시스】김희준 기자 = '피겨여왕' 김연아(23)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동계올림픽 2연패 전망을 한층 밝게 했다.

김연아는 17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버드와이저 가든스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2013세계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48.34점을 획득, 지난 15일 쇼트프로그램(69.97점)과 합쳐 총 218.31점을 얻어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메이저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던 김연아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완전한 '여왕의 귀환'을 알렸다. 2년 만에 나선 세계 무대에서 나선 그는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4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개인 통산 두 번째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거머쥔 김연아는 이번에 경쟁자로 꼽히던 선수들을 완전히 제쳐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금메달 희망을 밝혔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김연아의 경쟁자로 꼽힌 것은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23)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카롤리나 코스트너(26·이탈리아), 애슐리 와그너(22·미국), 스즈키 아키코(28·일본) 등이었다.

어차피 이들은 소치동계올림픽에서도 맞붙어야 할 상대들이다.

이들 가운데 김연아의 아성을 무너뜨린 선수는 아무도 없었다. 김연아와 197.89점으로 2위에 오른 코스트너의 점수차는 20.42점에 달했다.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에서 트리플 플립 룽예지 판정으로 감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등 이외의 구성요소를 깔끔하게 소화해 1위에 올랐다.

프리스케이팅에서 김연아는 무결점 연기를 선보여 경쟁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스핀을 완벽하게 성공시킨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에서 룽예지 판정을 받은 트리플 플립에서 가산점(GOE)을 1.90점이나 챙겼다.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피드와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피드 모두 레벨4로 처리했고, 연기 후반부에 뒀던 트리플 러츠, 더블 악셀-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트리플 살코-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도 모두 가산점을 수확했다.

반면 '맞수'로 꼽힌 아사다는 쇼트프로그램부터 김연아와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쇼트프로그램에서 아사다는 두 차례 점프 실수 탓에 62.10점에 그쳐 6위에 머물러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프리스케이팅에서 134.37점을 받았지만 순위를 3위로 올리는데 만족해야 했다.

전 대회 3위였던 스즈키도 쇼트프로그램에서 이미 61.17점으로 7위에 그쳤고, 프리스케이팅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김연아에게 3.11점 뒤져 쇼트프로그램 2위에 올랐던 코스트너는 프리스케이팅에서 코피가 나는 악재 속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187.34점으로 5위에 그친 와그너도 김연아의 경쟁자라고 보기는 힘들었다.

유망주로 꼽히는 그레시이 골드(18-미국), 엘리자베타 투크타미세바(17-러시아)가 1년간 얼마나 성장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대회 성적을 보면 소치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를 위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골드와 투크타미세바는 각각 6위, 10위에 머물렀다.

김연아는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쇼트프로그램 78.50점, 프리스케이팅 150.06점 등 총 228.56점을 받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좀처럼 쉽게 깨지지 않을 역대 최고점이다.

선수 생명이 길지 않은 여자 피겨의 특성 탓에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서 2연패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올림픽 2연패에 성공한 것은 1928년 생모리츠 대회와 1932년 레이크플래시드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소냐 헤니(노르웨이)와 1984년 사라예보 대회와 1988년 캘거리 대회에서 금빛 연기를 펼친 독일의 피겨 스타 카타리나 비트 뿐이다.

소치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확한다면 김연아는 여자 피겨 역사상 세 번째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하게 된다. 다시 한 번 피겨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셈이다.

jinxiju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